

찬반 논란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심사보류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어제 416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주민권리·영업의 자유 등 침해 소지... "충분한 논의를"

아동인권 침해 등으로 찬반 논란이 이어지던 일명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이 결국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은 아동출입제한업소의 지정을 금지하고, 차별적 요소를 시정해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의 위반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경찰·충돌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심사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은 해당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떤 사안든지 도민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함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 입법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여러 논란에 휩싸였는데 행정에서도 깊이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저 또한 노키즈존의 영업 방식을 이해한다"면서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키즈존의 출발점이 아이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릇없이 행동하거나 위험하게 행동하는 아이를 방임하는 부모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1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그러면서 강 의원은 "사고에 대한 피해 책임을 업주에 부과하는 관례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업주들이 노키즈존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다"면서 "아이의 인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의 영업의 권한을 조례로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노키즈존을 지정한 자영업자 본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이익을 고려해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 선택을 인정해주는

사회가 필요하며, 갈등의 조정보다는 조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정순도 아동보육청소년과장은 "타 지자체의 경우 노키즈존 금지보다는 '에스키즈존'이나 아동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부모 교육이나 에스키즈존 도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험 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12일 금요일 음 3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70%
30%	성산	70%
30%	고산	60%
30%	서귀포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5/19°C
모레	맑음	15/23°C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13-15°C, 낮 최고 기온은 20-21°C로 전망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해돋이 05:36	달뜨기 01:13
해질 19:25	달짐 11:29
물때 만조 04:14	간조 10:54
15:44	22:25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	----	-------

내일 새벽까지 약한 비... 주말엔 맑은 날씨

이번 주말 제주지역은 토요일 아침까지 약한 비가 내린 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1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2일 늦은 오후부터 13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강수량은 5mm 내외.

12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5°C, 낮 최고기온은 20-21°C로 예상되며 13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5°C, 낮

최고기온은 19-20°C에 머물렀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일요일 오전에는 곳에 따라 흐린 날씨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해상과 남해서부해상에는 13일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영기자

일반재판 4·3수형인 2차 직권 재심 청구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하 합수단)은 4·3 당시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 1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재판 4·3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2월 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며 재심을 직접 청구했다.

그동안 합수단은 4·3 당시 군법회의를 통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을 상대로, 제주지검은 4·3당시 일반재판을 받은 수형인을 상대로 직권 재심 업무를 각각 수행해왔지만 올해 2월부터 이런 업무가 합수단으로 일원화됐다.

이는 4·3 직권 재심만 전담하는 합수단과 달리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해 업무 효율·신속성이 떨어지고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상민기자



화사한 자태 자랑하는 분홍 낮달맞이꽃 11일 제주시 이호동의 한 인도에 분홍 낮달맞이꽃이 만개해 오가는 이들의 시선을 끌고있다. 이상민기자

다목적체육관 없는 학교 순차 건립

제주도교육청이 다목적체육관 미보유 학교를 대상으로 건립 사업 신청(한라일보 3월 16일자 5면)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는 현재 건립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를 제외한 전체 미보유 학교 12곳 중에서 7곳이 신청하는 등 총 9곳이 참여하기로 했다. 도평초, 신촌초, 효돈초, 덕수초, 은평초, 수산초, 선홍초, 한동초, 추자중이 그곳으로 여기에는 사실상 체육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설을 보유했거나 학교 밖에 다목적체육관을 둔 2곳이 포함됐다.

이 사업은 제주도 등과 비용을 분담해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김광수 교육감 임기 내 미보유 학교를 해소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 아래 추진됐다. 김 교육감은 앞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모든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을 신청한 학교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 지역주민, 동문회,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별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중심인 학교에 다목적 체육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특히 효돈초, 덕수초, 선홍초, 한동초 등 4곳은 별도 부지 확보를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서'를 첨부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의 다목적체육관 조성 의지를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도교육청은 내부 선정위원회를 꾸려 학생 수 현황과 추이 등을 기준으로 9개 학교에 대한 사업 순서를 결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다. 향후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는 제반 절차를 거쳐 2025년쯤부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거나 부지 마련이 어려운 곳, 학생 수가 급감하는 학교 등을 빼곤 사업을 신청했다"면서 "건립 우선순위가 정해지긴 했지만 일부 학교의 부지 확보 시기 등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4주년을 축하합니다

한국식생매트
협동조합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주식회사 한라환경

보행매트 생산

친환경식생매트는
보행로의 토사유출을 막아주며
보행감과 안정감이 좋고
장시간 보행시 피로감을 줄여주는
건강매트입니다.

대표이사 **오 태 흠 · 진 영 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송이길 172(회천동)
Tel. 064-721-0025 Fax. 064-721-3303 E-mail. halla7273@hanmail.net